

불자로 살아가는 '할리우드 별들' 이야기

리처드 기어, 사론 스톤, 제니퍼 로페즈, 엘라니스 모리셋, 마이클 스티턴, 패티 스미스, 허비 헨콕, 팝핀 글래스, 조지 루카스. 이들의 공통점은 할리우드를 주름잡는 세계적인 영화배우거나 뮤지션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불자들이다. 할리우드의 별들 가운데 불자는 몇 명이나 될까?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진 않지만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 한다. 할리우드 뿐 아니다. 스포츠 스타라든가 유명 법조인 가운데 불교에 귀의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왜 그들은 불교에 귀의 했을까? 오랜 세월동안 유전자로 전해진 종교적 전통을 버리고 불교에 귀의한 스타들의 삶은 어떻게? 참으로 많은 것이 궁금해진다. 그들이 스타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불교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아는 것은 불교가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의 종교인가를 파악하는 길이 될 것이다.

간헐적으로 유명 스타들이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거나 대화하는 보도가 나왔고 그때마다 불자들은 우물쭈물했다. 단편적인 보도에도 기본이 좋는데 할리우드의 불자스타들의 성장과정과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는 도전기, 마침내 꿈을 이루는 검정과 스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 등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거기다 그들의 불교에 대한 굳은 신념을 확인한다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을 것이다.

〈할리우드 불자들〉은 그런 즐거움을 전혀 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성후 스님(사진)이 할리우드 스타들을 직접 만나거나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쓴 스타들의 이야기다. 물론 이야기의 중심은 불교다. 불교를 접함으로써 더 없이 값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들, 성후 스님은 불교라는 키워드로 그들의 사생활과 정신세계, 열정과 좌절을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정리했다. 작업을 하는 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성후 스님은 "아주 즐겁게 일했다"고 말했다.

우선 읽고 넘어갈 것이 있다. 스님이 할리우드 스타들의 이야기



할리우드 불자들
성후 지음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1000원

를 썼다면 '연세'는 얼마나 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 것이다. 그리고 주저 없이 30대 혹은 40대라고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성후 스님은 올해 환갑이다.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를 어려움 없이 구사하는 환갑의 스님이 할리우드 스타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한국의 불교계가 반성할 일 바란다"는 것. 성후 스님에게 〈할리우드 불자들〉의 주변 얘기들을 들었다.

— 할리우드 스타들이 불교에 귀의하는 양상은 어떤가요?
"그들이 귀의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대의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지만, 거리가 달라이라마의 영향을 받아 티베트 불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리처드 기어가 그렇고 그에게 영향을 받아 귀의한 사론 스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불교가 세계라는 무대에서 '명함'을 내 놓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산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불교에 귀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입니다. 스타가 되기까지의 고난과 된 이후의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며 무한한 평안을 얻는 겁니다."

— 그 평안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훨씬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드러나고 남을 위한 봉사와 기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참으로 성실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리처드 기어의 경우 '할리우드 대법사'란 별명이 자연스레 따라다니잖아요?"

—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불자들에게 주고 싶은 암시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자는 겁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향한 불교계의 관심이 너무 초라합니다. 미래를 심지 않는 이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할리우드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청소년들의 관심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불교의 아름다운 가치를 배우길 바랍니다. 불교는 어렵고 딱딱한 종교가 아니라 즐겁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임을 이해하라는 것이지요?"

— 다른 스타들의 얘기도 수집하셨는지요?
"원래 45명의 이야기를 출판할 계획이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열되면 방만해질 것 같아 최종적으로 9명을 선택했습니다. 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세계적인 스타들이죠. 타이거 우즈, 해리스 포드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유럽의 스타들과 명인들의 불교 귀의와 삶에 대한 자료들도 챙기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몇 권 더 출간할 생각입니다."

—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불교는 생활과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가치를 스스로 점검하고 고양시키는 것이 지겨우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움을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운동과 해외 교류, 이를테면 홈 스테이아 스터디 그룹과 각종 동아리 교류 등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선수행 입문자를 위한 지침서



스즈키 선사의 선심초심
스즈키 순류 지음 정창영 옮김
물방자리 펴냄 | 1만원

미국에 일본의 선불교를 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스즈키 순류(鈴木俊隆, 1904~1971)선사는 '초심(初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좌엄경>에서도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變正覺)'이라 했다. 스즈키 선사는 깨달음을 향해 처음 일출된 마음을 잘 지킬 것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인들의 초심과 진지한 귀의에 감명받았다. 그 감명이 서구 최초의 조동종 선원인 타사하라 선원과 그 지부인 샌프란시스코 선원을 장건하게 했다. 또 유능한 농장을 설립해 농사와 선수행을 병행하는 선농일치의 실천에 앞장섰다.

〈스즈키 선사의 선심초심〉은 스즈키 선사가 생전에 한 법문들을 체계적으로 모은 책이다. 그런만큼 선수행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선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지침을 전한다. 바른 수행을 위한 몸가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마음가짐의 길을 밝히고 있다. 또 불교와 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법문들도 실렸다.

임연태 기자

건강한 '밥상 차리기' 비법은?



독이 되는 밥상
가즈코 우메사키 지음
이레희 이혜 옮김 | 문공 펴냄 | 9800원

밥이 보약이란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다 약이다. 영양학적인 잣대가 건강의 지킴이라는 보장은 없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생활 습관과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볼 때 식사와 건강한 삶은 자신의 지혜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밥상'을 약상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독상으로 만들 것인가?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밥상은 약이 되고 삶의 질서를 무시한 밥상은 독이 된다. 이 책은 밥상 건강학의 ABC다. 기후와 풍토 생활환경과 정신상태 등을 전적으로 약이 되는 밥상 차리기의 지혜를 안내한다. 음양을 조화 시키는 음식 만들기 안내도 침부해 책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만 해도 밥상이 달라진다. 음양의 조화를 키워드로 하는 건강 식단은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밑천이다. 그러나 저자는 조화로운 밥상 차리기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 먹고 사는 일입니다.

임연태 기자

평화를 꿈꾸는 수행자의 詩語



이렇게 살아 가리라
석해운 스님 지음
한스정모 펴냄 | 1만원

나 부처님 곁에 있고
외로운 사람이 찾아와 문두드려 때
아침없이 부처님 품안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자연의 고향으로 안내해 드리지요,
세상에 엄청난 길 많이 있지요,
그가 사멸될 슬기롭게 여겨 나가야 합니다.<후략>

해인사 포교국장 등을 지냈으며 지금은 서울 해인선원 선원장인 해운 스님의 시집에는 고백과 구도심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이 녹아 있다. 수행자가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입관을 형성 시킨다. 선입관이란 다른 아닌 구도적 자세로서의 몸부림 일 것이다. 해운 스님의 시집에도 구도적 자세는 근엄하게 묻어둔다. 그러나 경직된 구도심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중생과 더불어 편안함을 향하는 선사의 열린 마음이 시편들에 적절하게 녹아 있다.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중동지역의 평화를 갈망하는 수행자의 마음도 영문시로 표출되고 있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3	정진	지광	렘덤하우스
4	절을 가져야 할 법	정건	붓다의 마음
5	화, 육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툼튼 초드론	미디어 월
6	무로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자	운주사
7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8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길은 있다	지현	조계출판사
9	스님 마음이 불연어	법륜	정토
10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기초에서 창작까지 전통 꽃예술의 실기와 이론

한국 꽃예술과 불교

꽃예술 과정 1~2 : 1)소재에 대한 기초기법 2)화기의 선택 3)수반꽃이와 병꽃이의 요령 4)수반 꽃꽃이의 19가지 형과 병꽃꽃이 14가지 형 각 화형에 대한 작품과 상세한 해설

꽃예술 과정 3 : 자유 창작의 기본 원리인 선·면·매스 등 다양한 구성 기법을 2가지로 분류

꽃예술 과정 4 : 1)불전공화의 역사적인 유래와 함께 이해를 돕는 설명 2)의식 및 재래명절을 세분하여 작품과 함께 해설

꽃예술의 이론과 실기를 꽃꽃이를 배우는 사람과 지도하는 사람 그 누구든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에서 창작까지 전 과정을 분류하여 수록했습니다.

보림 지면 편자 / 도서출판 인아 263쪽 / 값 20,000원

■ 한국 꽃꽃이 협회(금연중임회) 1972년 임원
■ 현재 국내전 및 국제전 30회 이상 출품
■ 전국 불교꽃이 연구 및 불교꽃예술원 원장(현)
■ 전국 불교꽃이 연합회 1988년 창립 및 초대회장 역임
■ 평생사 승가대학 10년간 출강
■ 2005년 7월 European Floral Art Course 과정 수료
■ 한국화(디자인학) 석사(현)

보림 지면 스님 (사)한국꽃이협회 이사 및 보림꽃예술중앙회 회장(현)

구입문의: 기원사 02)919-0034

꽃꽃이 강의 (초, 중, 고, 사범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기원사
-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불교꽃작품연구

* 책값 구입하시는 분은 3개월 무료로 강의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예외시 문인부담)

금강약돌 온열복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뢰기기 05-0626호 인증

전자파 장애실험 통과 특허권 환경인증

상성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심안출원 권

원칙의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면 80°C 이상의 열과 생육광선이 발생되어 원칙의선 "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 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속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칙의선 "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C~80°C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칙의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배탈, 설사를 막읍시다.

날씨가 더울수록 우리의 배는 더 차가워지며 배가 차면 **질병의 원인**이 되며 또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은 먼저 선제책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북한 3대 명산품인 세계최귀의 금강약돌의 효능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약돌에서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명산품으로 세계최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육각거북건강매트, 오심견심매트, 헬스방석, 요추,경추베개, 족온기, 팔찌,목걸이, 베개볼 등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하신 분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 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금강약돌(02)723-0099 **농협170-12-056037 정애영**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통**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 놓은 **(바로보인 전통)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대웅전 원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통 특 전 5권 - 5만원 (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 - 10권 : 105,000 (30% 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8월 전국 법문은 여름수련회의 법문행사 심명 법문으로 대신합니다.
서울 법회는 9월 2일(토) 열립니다.

* 서울선원 ☎ 02-522-0122(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1시
* 광주선원 ☎ 062-944-4088
* 선문염송/9월 9일(매월 셋째 일요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 051-545-2460
* 반야심경/9월 16일(매월 넷째 일요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